



경제연구기관과 경제학자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왜 거시경제의 주요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무지의 주장이다. 경제학자의 오만이 빛은 일반인의 편견이다.

## I. 서론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년 뛰어난 경제학자 5명을 선정한다. 연초에 경제학자들에게서 그 해 4분기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물가상승률, 정책금리 등에 대한 전망치를 받아둔 뒤 이듬해에 실제 수치가 나오면 ‘누구의 전망치가 실제 결과에 가장 근접했는지’를 따져 베스트5를 선발한다.

필자가 보기엔 탁월한 경제학자를 그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WSJ이나, 그런 방식에 응해서 뛰어난 경제학자로 선정되고자 전망치를 제출하는 경제학자나, 경제에 대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로 상황을 나눠 생각해보자. 우선 경제학자가 경제 현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각각 혼자만의 공간에서 지내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각 경제학자는 해당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예측치를 내놓은 뒤 해당 경제 통계가 집계될 때까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지낸다. 둘째는 경제학자가 서로 견해를 나누며 자신의 전망치를 경제주체에게 내놓을 수 있지만 정책적인 조언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셋째는 경제학자가 전망치와 함께 정책적인 훈수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경우다.

경제학자가 경제로부터 완전 차단된 상황부터 살펴보자. 경제학자가 초기에 주어진 변수를 놓고 그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 예컨대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로 인한 부실채권이 신용경색을 일으키고 기업 경영에 주름을 주는 정도, 그렇게 된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서 양산하는 실업과 그로 인한 경기 하강, 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내놓고 쫓돌리게 된 가게에서 비롯된 소비 위축의 정도, 그리고 이렇게 냉각된 시장이 다시 기업과 가게에 주는 충격을 시일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예상하는 일이 가능할까?

## II. 경제학자로 하여금 홀로 예측케 하면...

그런 경제학자는 없었다. 경제학은 앞날을 미리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같은 대학에서 같은 전공 분야로 경제학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같은 자료를 놓고 장차 경제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는 현상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경제 전망에는 주관이 개입되고, 그 영향력은 경제학 이론을 능가한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 가장 발달해 수리적으로 매우 정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경제학자들이 컴퓨터에 입력한 경제모형에 자료를 넣어 돌리면 그럴듯한 결과가 나온다고 상상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경제모형은 하나가 아니다. 이 또한 경제 예측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경제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경제학자

의 주관이 개입된다. 뿐만 아니다. 경제모형을 돌려 전망치를 얻기 위해 경제학자는 여러 가지 변수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그런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한다. 경제모형을 돌려서 얻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같은 수치는 내생변수다.

외생변수 중 유가를 생각해보자. 경제를 물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지는 경제학자가 자신의 감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내리막을 걷는 동안에는 유가가 아래 쪽으로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다. 그러나 유가가 얼마나 떨어진 상태로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어 뜻 그대로다. 외생변수를 정확히 예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상황이 지금과 같이 가더라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전혀 뜻밖의 요인이 불거져 외생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외생변수가 럭비공처럼 튀는 사례를 찾기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멕시코만 바닷속 원유 누출이 유가에 영향을 준 것도 그런 사례다. 멕시코만 바닷속 유정에서 지난 4월 사고가 나 원유가 대량으로 누출되고 있다. 원유가 나오는 구멍을 막지 못해 멕시코만이 견잡을 수 없게 오염됐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연안 유정 시추를 일정 기간 금지한다고 밝혔고, 유가는 이로 인해 오름세를 탔다.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 사고가 유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해외경제 역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며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싶던 세계 증시와 경제주체의 심리에 짙은 구름을 드리우리라고,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

### Ⅲ. 틀린 예언도 현실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제각각으로 나온다. 결코 한 쪽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을 둘째로 바꾸면 전망이 비슷해진다. 둘째 상황에서는 경제학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전망치를 다듬고, 그 예측을 경제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똑같아지진 않지만 대다수 경제학자의 예측치는 일정한 범위 안에 떨어진다. 튀는 전망은 매우 드물게 된다. 무리 속에 있다가 함께 틀리는 편이, 중뿔난 예측치를 내놓았다가 혼자만 틀리는 것보다 낫고, 경제학자들도 그런 군집행동의 압력에

서 자유롭지 않다.

서브 프라임 사태가 터진 뒤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떠올려보자. 미국을 진앙지로 한 부동산 버블의 붕괴되고, 버블을 토대로 쌓아올린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속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경제학자들은 앞가림에 바빴다. 앞가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례없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처음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는 경제학자들이 서브 프라임 사태 발발 초기에 예견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다. 그러자 경제학자들은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번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말이다.

경제주체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다. 매출이 급감하자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금융회사는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출 문을 닫아 걸었다. 경제가 잘 풀릴 때엔 경제주체들이 각자도생하면 대체로 바람직한 성과로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가 안 풀릴 때 각자도생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했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대공황 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안 심리를 걷어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여건이라면 심리를 다독이는 방법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심리는 경제의 흐름을 강화한다. 경기가 좋아질 때엔 좋은 쪽으로 움직임에 힘을 보태, 그 속도를 빠르게 한다. 경기가 내리막을 걸을 때엔 경제를 더 빨리 미끄러져 내리도록 등을 민다. 경제학자의 전망은 경제가 좋을 때엔 긍정적인 쪽으로, 나쁠 때엔 부정적인 쪽으로 몰린다. 이는 붐(boom)과 버스트(bust)라고 불리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가 극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제는 다시 실험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선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서브 프라임 사태는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다. 그런데 상당 기간 큰 불황을 겪지 못했던 경제학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일이 커져버렸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처방이 없었어도 세계경제는 때가 되면 다 회복될 것이었다.’

#### IV. 맞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 버블과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가치 붕괴는 대공황급 충격과였다. 세계경제 위기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장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안했으며, 정책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잘 이행한 결과 세계경제는 파국을 비껴갈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셋째 상황으로 넘어왔다. 경제학자가 처방도 제시하면서 전망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이게 실제 상황이다. 그런데 WSJ은 수치만 내놓으라고 했다. 현재 실업률이 9%선이고, 두 경제학자는 실업률을 각각 10%와 7%로 예측했다고 하자. 실업률을 10%로 내놓은 A경제학자는 “경제가 이런 추세로 나빠지면 연말 실업률이 1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자. B경제학자는 “경제를 이대로 둘 경우 실업률이 10%를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정책을 쓰면 7%까지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조언을 함께 제시했다고 하자.

정책당국은 B경제학자의 조언을 일부만, 그것도 한 박자 늦게 반영했다고 하자. 그래서 실업률이 9%선에서 미미하게만 높아졌다고 하자. 이 때 예측치만 놓고 따져서 A경제학자가 정확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걸까?

비유를 하나 들겠다. 의사가 두 명 있다. A의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지금 같은 생활을 고치지 않고 별도로 치료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혈당치가 연말에 a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B의사는 같은 환자에게 “음식을 골라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당신의 혈당치는 연말에 b수준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환자가 B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연말에 환자의 혈당치는 a에 가깝게 나왔다. A의사가 B의사보다 뛰어나다고 할 환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과치를 맞추는 게 경제학자가 할 일이 아니다. 경제변수를 맞춰보라며 문제를 내는 WSJ이나, 알겠다면 그 시험에 응하는 경제학자나 경제학과 경제에 대해 무지하기는 매한가지라고 한 건 이 때문이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비판, 즉 ‘경제전문가들이라면서 성장률과 실업률 같은 변수 하나 맞히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오해는 경제학자들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거시경제학 분야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경제 예측은 경제학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케인스는 불황과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충격을 완화하느냐에 연구의 주안점을 뒀다.

## V. 60여년의 오해 이제는 불식할 때

경제학자들이 어떤 계기로 경제 예측에 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이 새로운 기술적 도약의 성과인 컴퓨터와 만나면서 경제예측이 각광받게 되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 즈음인 1949년에 한 가지 흥미로운 발명품이 등장한다. ‘필립스 수력 컴퓨터’ 일명 모니악(MONIAC)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파악한 경제학자 필립스가 만든 장치다. 모니악은 물탱크, 관, 밸브, 펌프, 수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앞면이 투명해 속이 들여다보이는 큰 찬장 모양이다. 모니악 안의 물은 마치 경제에서 돈이 도는 것처럼 투명한 파이프를 통해 흐른다.

경제학 수업의 교보재로 개발된 모니악은 경제를 예측하는 데도 쓰였다. 당시 몇 대 안 되는 컴퓨터는 정부의 업무와 군사 용도로만 사용됐다. 모니악은 경제의 내생변수를 2% 미만의 오차범위 안에서 계산해냈다고 한다. 모니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호주 맥번대학 등에 팔려나갔다. 모두 14대 만들어진 모니악 중에 현재 실물은 케임브리지대학, 뉴질랜드 중앙은행 등에 남아 있다.

이후 컴퓨터가 발달하고 경제모형이 정교해지면서 전망을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자신감이 점점 강해졌다. 경제학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은 지난해 타계한 폴 새뮤얼슨 같은 학자가 잘 드러냈다. 새뮤얼슨은 ‘경제학 교과서 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길게 보면 비경제학자의 예측은 통계학자와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뮤얼슨도 자신의 예측이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빛나갔음을 부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예측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여유를 남겼다.

이후 많은 경제학자는 경제를 예측하는 데 에너지와 지력을 쏟아부었다. 일반인에게서 기상예보관

보다 못하고 점쟁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아냥을 받을 때면 예측이 왜 틀리는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경제학자가 받을 헛 디딘 위에 일반인의 오해가 쌓였고, 경제학자는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였다. 새뮤얼슨과 같이 출중한 경제학자가 방향을 잘못 잡은 탓이 크다.

경제학자의 사명은 수치를 맞히는 데 있지 않다. 경제가 잘 굴러갈 때엔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그걸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에 더 큰 충격이 닥치는 걸 막아야 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그런 방안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건 LTV와 DTI 같은 장치를 도입한 덕이 컸다.

경제학자는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은 경제에서도 틀리지 않다. ☺

